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빈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립적 조형요소를 활용한
도시 속 식물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권 은 솜

대립적 조형요소를 활용한
도시 속 식물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임 상 빈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권 은 슝

인 준 서

권은숨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 속 식물을 소재로 한 작업을 중심으로 보여준다. 나는 도시 속 식물이라는 소재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도시 속 식물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도시 속 식물이 주는 정신적 회복에 의의를 두고 있다.

2016년 봄날의 경험으로부터 도시 속 식물에 매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느낀 에너지에 주목하고 도시 속 식물이라는 소재가 가진 인공과 자연이라는 대립적 소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도시 안에 존재하는 식물은 인공적 요소에 둘러싸인 자연으로 대자연의 무작위 한 식물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 있는 생물로서 도시 안에 살아가는 고유한 모습과 삶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작업을 통하여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양면적 특성과 환경을 시각화하고 도시 속 식물의 이야기와 자연 풍경이 주는 환경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드러낸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대 사회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의 모습을 특성에 따라 구별하여 세 가지의 작품 시리즈로 보여준다. 작업을 통해 나는 도시 속 식물이 가진 자연의 힘을 전함과 동시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시도한 의도를 나타내고 분석하였다. 나는 도시 속 식물이라는 도시의 주변부 요소를 중심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시각의 전환을 도모하고 도시 속 분위기를 환기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도시 속 식물의 특성과 힘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도시 식물을 일상의 작은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 보다 미시적으로 해석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도시 속 식물의 개념과 특성	3
1) 인공적 환경	3
2) 이상향의 요소	4
3) 생명의 지속성	6
2. 대립적 조형요소의 활용	8
1) 선명한 색과 빛바랜 색	9
2) 유기적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	10
3) 입체적 질감과 평면적 질감	11
3. 도시 속 식물을 통한 가치실현	12
1) 찰나의 휴식	12
2) 즉각적 에너지	14
3) 영원한 꿈	15
4. 작품분석	16
1) ‘Vivid Plants(선명한 식물)’ 시리즈	16
2) ‘Artificial & Natural(인공과 자연)’ 시리즈	20
3) ‘Figure Plants(도형식물)’ 시리즈	24
III. 결론	2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Artificial & Natural I>, 31x27.5cm, print & watercolor on paper,
2018 3, 20
- [작품 2] <The Four Pine Trees in Sungshin University>, 130.3x162.2cm,
acrylic on canvas, 2018 5, 16
- [작품 3] <The Seven Boxwood Trees>, 27x42cm, print & watercolor on
paper, 2018 6, 21
- [작품 4] <Untrammeled Growth>, 72.7x60.6cm, acrylic on canvas, 2019 9
- [작품 5] <Untrammeled Growth> (detail) 10
- [작품 6] <The Plant Keeps the Place>, 116.8x91cm, acrylic on canvas,
2019 17
- [작품 7] <It Keeps an Old Town>, 145.5x112.1cm, acrylic on canvas, 2019
..... 18
- [작품 8] <Vivid Plants>, 91x116.8cm, acrylic on canvas, 2019 19
- [작품 9] <Artificial & Natural II>, 37x27.5cm, print & watercolor on
paper, 2018 22
- [작품 10] <The Planned Landscape>, 37x35cm, print & watercolor on
paper, 2018 23
- [작품 11] <Leaves to be Cut>, 40.9x31.8cm, acrylic on canvas, 2019 24
- [작품 12] <The Regular Triangle>, 60x60cm, acrylic on wood, 2018 25

I. 서론

나의 주된 관심사는 도시 속 식물이다. 이는 도시 속 식물에 대한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봄의 어느 날, 나는 도시 속 식물이 주는 자연의 에너지에 매료되었다. 그날 나는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앞 계단에 앉아 학교 중앙에 위치한 잔디밭과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년 동안 매일같이 지나다니며 마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가만히 그곳을 바라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학교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작고 푸른 잎들은 말라죽은 것만 같았던 앙상한 나뭇가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풍경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과 고요함이었으며 동시에 강렬한 생명의 에너지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봄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전엔 알아차리지 못했다. 푸릇푸릇한 봄은 따뜻한 감성으로 충만하였다. 나는 이것이 ‘힐링(healing)¹⁾’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짧은 순간이지만 신선한 에너지를 가득 받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잠시 동안의 자유시간이 끝나고 나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도시 속 자연에서 나와 다시 건물 안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 이동했다. 자연의 에너지를 가득 머금었기 때문일까, 평범한 일상이 다른 시각으로 보였다. 자연에서 느꼈던 신선한 에너지처럼 생기가 넘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샘솟았다. 똑같은 나날의 하루였지만 긴 휴식을 끝마치고 상쾌하게 돌아온 듯한 느낌으로 그날의 남은 일과들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었다. 그날의 경험 이후로 나는 인상적이었던 도시 속 식물의 에너지와 그 환경에

1) 힐링(healing):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으로서 치유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힐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7394&cid=62841&categoryId=62841> (2019.3.21.)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요소들을 지나치며 겪게 되는 심리적인 변화가 흥미로웠다. 그 이후 나는 도시 속 식물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논문에서 나는 작품에 나타난 도시 식물 이미지, 그리고 이를 표현한 방법과 의도를 분석한다. 본론에서는 개인적 경험이 작품의 주제로 시각화하게 된 계기와 방법을 설명하고 도시 식물의 특징과 개념을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는 내가 주목하는 도시 식물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나의 도시 식물 작업과 연결한다. 2장에서는 내가 다루는 도시 속 식물의 표현 방법들을 서술한다. 3장에서는 도시 식물 작업을 통하여 내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낸다. 4장에서는 작품을 시리즈별로 정리하여 도시의 식물을 나만의 시각으로 시각화한 과정과 의도를 심도 있게 서술한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하여 도시 속 식물에 대한 나의 주장을 밝히고 이를 학문적 의의와 앞으로 진행될 도시 식물의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나는 관람자들에게 다원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규격화되고 있는 도시 일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미학적 감동으로 전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도시 속 식물의 특성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보다 강하게 인식한 나는 주위의 도시 속 식물들의 양상에 집중해 보았다. 도시의 식물은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에게 힐링의 경험을 주었던 학교 정원을 비롯한 일상의 도시 식물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선 그 식물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탐구하였다. 그것은 ‘인공적 환경’, ‘이상향의 요소’, 그리고 ‘생명의 지속성’ 이 세 가지이다.



[작품 1] Artificial & Natural I, 31x27.5cm, print & watercolor on paper, 2018

1) 인공적 환경

‘인공적 환경’은 사람이 만든 작위적인 공간에서 생태하는 도시 식물의 특징을 의미한다. 나는 도시와 같은 ‘인공적 환경’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으로서 ‘인공적 환경’의 미학적 발견, 일상의 미학적 즐거움을 추구한다. 특히 도시 속 건물들과 같이 설계된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연물에 집중하는데, 예를 들어 현대식 건물과 화단, 도심 테마정원, 가로수 등과 같은 풍

경이다. 이러한 ‘인공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나의 작업에 등장하는 식물들은 ‘무위자연(無爲自然) 2)’, ‘무작위 한 잡초 식물’과는 구별되며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립이 작업 속 이미지에 드러난다. 특히 나의 ‘인공과 자연’ 시리즈 중 하나인 [작품 1] (p.3 참조)을 보면 도시 구조물로 혼하게 존재하는 울타리와 그 사이를 지나 살아가는 울창한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 도시 구조물과 식물의 대립, 곧 인공과 자연의 대립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 식물의 첫 번째 특성 ‘인공적 환경’을 보여주는 예이다.

나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요소에 집중하고 주변을 중심화하며 일상에서 찾은 자연의 요소로 도심의 소소한 즐거움을 제시한다. 또한 도시 식물과 같이 ‘인공적 환경’에 살아가는 도시민으로서, 도시 체제에 위치하고 살아가며 지정된 모습을 요구받게 되는 도시 속 식물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이상향의 요소

‘이상향의 요소’란 이상적이고 완전한 존재로서의 도시 식물의 특징을 말한다. 나는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상 세계보다 현실에서 꿈꾸고 실현하는 이상을 소망하는데 도시 식물은 이런 나에게 현실 속 이상 세계이다. 이런 이상향적 특징은 정원과 같은 도시 식물에게 주어진 공간의 구성과 식물 개체, 이 두 가지 이미지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먼저 도시 식물이 취하고 있는 공간에서, 식물의 대부분은 기획된 작위적 공간에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그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식물의 모양과 공간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2) 무위자연: 인위적인 손길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을 의미하는데, 자연에 거슬리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속세의 삶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가리킬 때도 사용한다. 「고사 성어랑 일촌 땀기」, 기획집단 MOIN 외 1인, 서해문집 출판사, 2010

나의 'Vivid Plants' 시리즈 중의 하나인 [작품 2] (p.5 참조)를 보면 앞쪽의 넓은 잔디밭, 길게 줄지어진 푸른 회양목, 그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진 조화로운 소나무가 있는 공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소나무 아래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의자와 벤치가 하나씩 놓여있는데, 이곳에 앉아



[작품 2] The Four Pine Trees in Sungshin University, 130.3x162.2cm, acrylic on canvas, 2018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자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쉬는 상쾌한 휴식을 상상할 수 있다. 이 공간을 기획한 사람은 이러한 이미지와 효과를 꿈꿨을 것이다. 정원이라는 공간은 이상향의 실현을 소망하는 인간의 정서가 담긴 곳이자 문화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에덴동산³⁾, 에피쿠로스(Epikuros, BC 341-BC 270년경)의 정원⁴⁾, 페르시아인의 파라다이스⁵⁾ 모두 이상향으로써의 정원이었다. 동시대사회의 도시민들도 각

-
- 3) 기독교의 에덴동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으로 구약성서 <창세기>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한 동산이자 회개한 인간이 마지막 날 이르게 될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상징한다.
 - 4) 에피쿠로스의 정원: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들은 아테네 교외에 정원을 사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 정원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 그곳엔 여자와 노예도 있었고 동등한 삶을 꿈꾸며 살았다.
 - 5) 페르시아인의 파라다이스: 우리가 낙원이라고 번역하는 파라다이스라는 원래 '폐쇄돼 있는 공간'이라는 뜻의 고대 이란어인 Paradise에서 유래하였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페르시아인들은 늘 풍요로운 정원을 꿈꿨고 그것이 결국 수많은 식물과 야생의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어졌다. 결국 페르시아인들에게 파라다이스란 이상향이면서 닫혀 있는 공간이었다.

박한 도시의 한편을 정원과 식물에게 내어주고 이곳을 가꾼다. 이것은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소망 행위이다.



[작품 3] The Seven Boxwood Trees, 27x42cm, print & watercolor on paper, 2018

그리고 나의 ‘도형 식물’ 시리즈에서 식물 개체가 가진 이상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작품 3]의 도형 식물 시리즈작업에서 반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식물들 모습에 각각 다른 색을 덧대어 칠함으로 식물이 가진 개체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조형적 더하기를 통해 도시의 구조물 풍경과 식물의 모습을 대립적으로 드러냈다.

이상향으로써의 도시 식물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도시 속 식물이 이상향을 표출하는 인간의 한 가지 문화이자 요소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치는 도시 속 식물, 이는 우리의 꿈과 이상이다. 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여 그 안에서 꿈과 이상이 실현되길 소망한다. 그러므로 도시 식물은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요소며 이는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

3) 생명의 지속성

‘생명의 지속성’은 단편적으로 유지되기보다 상태나 개체 속성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특성을 말한다. 나는 장식적 요소보다 원초적 생명에 주목하는데,

도시 식물은 내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생명의 지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고정되는 인공물과는 다르게 생성, 유지가 가능한 식물의 특성이다. 인공물은 생성과 동시에 옛것이 되지만 식물은 심어진 위치에서 끝없이 변천한다. 나의 작업 중 ‘Vivid Plants(선명한 식물)’ 시리즈의 [작품 2] (p.5 참조)에서는 도시 건물 풍경과 대조적으로 높은 채도의 색, 두터운 질감의 식물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나는 이 방식을 통해 식물을 도시 인공물과는 다르게 지속 가능한 생명의 에너지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도시와 자연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지만 대립적으로 보여주는 생명의 에너지, 특히 그중에서 식물이 가진 생명력에 주목하는 나의 시각을 보여주는 예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처럼 ‘인공은 짧고 자연은 길다’ 나는 자연을 통해 겸허함과 겸손함을 느꼈고 도시 식물의 가치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건물을 장식하기 위한, 작은 미화용 식물이 어느새 건물만한, 건물보다 큰 가치로 다가왔고 나와 교감하며 작은 부분이 아닌 상호 대등한 존재가 되었다.

교통과 시장의 발달 등의 이유로 사람들과 기업은 도시로 몰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건축물이 빼곡히 들어서게 되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환경, 경제, 미화의 측면에서 도시 속 공원, 화단, 가로수 등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입증해 주었고, 오늘날 도시 속 자연의 도시민의 생활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도시 식물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나는 도시 식물이 가진 ‘인공적 환경’, ‘이상향의 요소’, ‘생명의 지속성’의 특성을 연구하며 그 안에 ‘인공과 자연’, ‘현실과 이상’, ‘멈춤과 재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였다. 우리는 자연, 이상, 재생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지만 인공과 멈춤의 요소가 넘치는 현실 속에서 생산적이고 편리한

삶을 다 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나는 도시 식물에서 찾은 세 가지 특성과 요소들이 동시대 사회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상적이었던 개인적 경험을 비롯한 도시 식물 이미지를 통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우리의 일상 풍경에 자연과 생명의 활력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2. 독립적 조형요소의 활용

나는 도시 식물이 준 힐링(healing)의 경험이 어떠한 요소로부터 실현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2016년 어느 봄날의 경험처럼, 식물을 중심으로 도시를 바라볼 때 도시의 인공물은 심리적으로 작고 단순하게 느껴졌다. 반대로 식물의 이미지는 다양한 색과 형태, 질감들이 세세히 보였으며 그 융합적인 자연의 에너지는 크고 강렬하게 다가왔다. 이날의 경험으로 나는 평소 시선 속에서 생활 중심이 되던 곳과 주변이 되는 곳이 변동됨으로써 시각적인 신선함을 느꼈고 식물을 관찰함으로 정신과 신체적인 회복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중심의 요소가 주변으로 물러나고 주변의 요소가 중심으로 등장하는 방법, 그리고 크고 가득 찬 모습으로 보였던 이미지가 ‘비워지고’ 그 자리에 작았던 요소가 크고 강렬하게 ‘채워지는’ 과정과 도시환경에서 생활화하지 못했던 자연의 ‘색’, ‘형태’, ‘질감’을 경험함으로써 실현된 정서적, 신체적 전환이었다.

나는 본론 1에서 발견한 ‘인공과 자연’, ‘현실과 이상’ 그리고 ‘멈춤과 재생’,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담긴 요소라고 생각했고 이들의 관계를 도시 식물을 통하여 더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도시 설계의 일부분

인 도시 속 식물들을 중심부의 요소로 시각화하고 도시와 자연의 균형을 맞춘다. 이를 통하여 도시와 식물이 종속과 부분이 아닌 수평적, 균형적 관계임을 드러내고 대립항의 대조가 주는 긴장감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 또한 내가 경험한 관점의 ‘비움과 채움’을 평면 안에 시각화하기 위하여 도심 속 식물에서 느낀 ‘색’, ‘형태’, ‘질감’이라는 조형적 요소를 활용한 표현 방법을 연구한다. 이는 내가 도시 속 식물이라는 소재 안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심리적인 경험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작업 속 도시 구조물은 ‘색’, ‘형태’, ‘질감’에 있어서 ‘비움’의 요소로써 실현되고 식물 이미지는 ‘채움’의 과정을 거친다. ‘색’, ‘형태’, ‘질감’의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명한 색과 빛바랜 색



[작품 4] Untrammelled Growth,
72.7x60.6cm, acrylic on canva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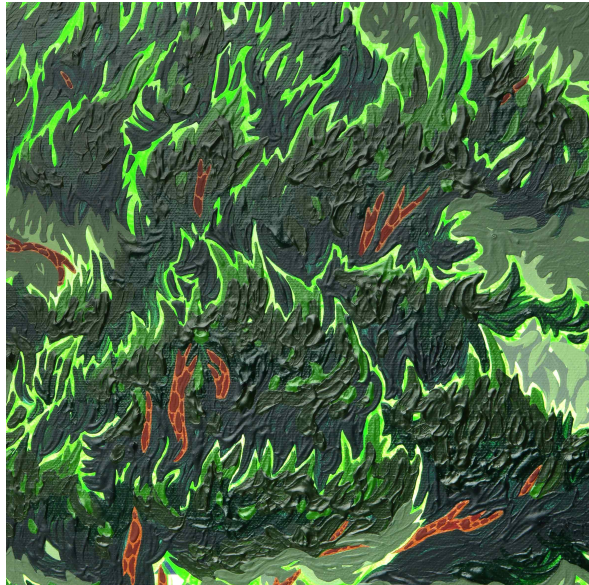
색’의 대조를 통하여 ‘비움’과 ‘채움’을 실천한다. 도시 풍경에는 단순화된 색과 낮은 채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간소화된 차분한 색을 사용해 도시 건물을 표현함으로써 실제보다 정돈되고 고요한 배경을 표현하고자 한다. 반대로 식물 표현에 있어서는 높은 채도의 강렬한 색, 다양한 색의 변주를 통하여 신선하고 강한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색의 대조를 이용함으로써 식물로부터 받은

인상을 시각화하였고 도시의 구조물 보다 식물을 화면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나의 'Vivid Plants(선명한 식물)' 시리즈는 이러한 색의 대비를 잘 보여준다. 주변 요소였던 식물이 평면 안에서 시각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수많은 화단의 그저 한 그루의 나무였을 식물에 집중함으로써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중심화하고 관점의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통하여 다원적인 시각과 기존의 현대식 건물의 모습이 담긴 도시 풍경이나 대자연의 식물을 담은 풍경화와는 다른 새로운 도시 풍경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유기적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

'형태'면에서는 수직, 수평의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해 건물 이미지를 단순화했으며 식물 이미지에는 다양한 곡선과 불확실한 형태들을 덧대어 채움으로써 조형적



[작품 5] Untrammeled Growth (detail)

채우기를 이루었다. [작품 5]는 [작품 4](p.9 참조)에서 유기적 형태로 식물을 표현하는 부분의 사진이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형태의 인공물과 변천하는 식물의 형태를 대립적으로 극대화한다. 이는 변화무쌍한 자연의 힘과 고정불변의 인공을 드러낸다.

나는 하나의 풍경 안에 두 요소가 극적으로 다르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상에 존재하지만 주목해 보지 못했던 요소에 집중해 보는 기회를 제

공한다. 획일화 되어가는 도시의 삶에 자연의 유연함, 강렬한 에너지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3) 입체적 질감과 평면적 질감

‘질감’에 있어선 두터운 붓질로 입체적인 식물 이미지와 평면적인 질감의 도시 건물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비우기와 채우기의 과정을 거친다. 이는 중심에 위치 된 식물 이미지에 생동감을 극대화한다. [작품 5](p.10 참조)와 같이 식물에 주어진 강렬한 색과 형태에 질감을 더함으로써 동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로 식물 이미지를 더 강조하였다.

나는 입체적이고 평면적인 질감의 대립을 한 평면에 섞어놓으면서 도시와 식물의 특성이 대립하면서도 공존하는 도시의 풍경을 드러내었다. 이는 통일적인 한 가지 질감을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전통적인 회화와 다른 방식이다. 또한, 나는 작업의 질감 표현을 붓이나 도구를 이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손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질감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식물의 동적인 에너지를 극적으로 시각화하고 손맛을 직접적으로 극대화한다. 식물을 다듬는 조경사와 같이 식물의 질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므로 작업 속 식물과 관람자들의 거리감은 줄어들고 그 둘은 더 생생한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작업을 보는 이들은 도시 속 식물을 보다 가까이 관찰, 집중하며 교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는 도시 풍경 이미지에 색, 형태, 질감의 차이를 줌으로써 인공과 자연, 현실과 이상, 멈춤과 재생의 특성을 가진 도시 풍경을 평면에 옮겨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도시 속 식물은 더 이상 도시의 소부분이 아닌 중심으로 드러났고, 도시 생활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던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불러일으켜주는 요소가 되었다. 보는 이들은 일상적이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도시 속 식물을 통해 다양한 시각의

공존 경험하게 된다. 나는 작업을 통해 우리의 일률적인 삶 속에서 작은 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자연의 신선함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 풍경화와 다른 도시 풍경 회화를 시각화하고자 한다.

3. 도시 속 식물을 통한 가치 실현

색, 형태, 질감을 활용한 도시 속 식물 이미지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휴식’과 ‘에너지’ 그리고 ‘꿈’의 실현이다. 이는 도시 식물로부터 내가 경험한 일화와 같이, 도시 생활에서 느낀 단편적이지만 강렬했던 자연의 힘을 통해 위로와 휴식, 안식을 얻어 자신의 일과 생활에 더 건강히 몰두할 수 있는 활력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도시를 자주 벗어나거나 멀리 떠나기 어려운 도시민들의 삶에 도시 식물들로 ‘찰나의 휴식’을 전하고 그 휴식에서 얻은 ‘즉각적 에너지’가 ‘꿈’의 실현에 기여하길 소망한다. 도시의 생활과 체계를 부정하기엔 이미 많은 곳이 도시화되었고 이곳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나의 작업은 언제나 도시민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안식과 에너지를 전하고자 한다.

1) 찰나의 휴식

가장 먼저 ‘찰나의 휴식’을 전하고 싶다. 일상에서 멀리 벗어나 어렵게 찾는 자연의 힐링(healing)이 아닌 도시 속 평범한 나날 속에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 경험할 수 있는 ‘찰나의 휴식’이다. 이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도시민들의 지치기 쉬운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엔 환경심리학⁶⁾에서도 도시 속 자연이 중요하게 대두되며 아파트단지의

6) 환경심리학: 환경에 따른 인간의 심리변화를 통해 인간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시와 자연환경의 설계 방법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옥외 공간, 도심 소공원, 피크닉 등이 행태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짧은 휴식과 여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찰나의 휴식’에 비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투우⁷⁾ 경기에 투우소가 들어가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작은 밀실인 케렌시아⁸⁾가 있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서 얻은 안정의 힘으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요소, 나는 도시 속 식물을 통하여 그곳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작업을 통하여 이를 전하고 싶다. 최근 동시대 사람들이 선호하는 추세 중에서도 미니멀라이프(minimal life)⁹⁾, 워라벨¹⁰⁾ 등의 비움과 휴식이 있는 삶의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넘쳐나는 정보와 물질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개인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공간이 그만큼 필요해졌다는 의미이다.

나는 도시 식물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건강한 휴식을 전하고자 한다. 도시 식물의 ‘찰나의 휴식’은 정해진 시간이나 먼 거리를 오가는 에너지의 소모가 없이 매일 같이 지나다니는 거리의 풍경에서, 나의 방한쪽의 작은 화분 안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자연의 휴식이다. 이는 동시대 사람들이 평소에 지나치던 작은 요소에 집중하고, 나아가 도시 안에 존재하는 자신과 같은 작은 생명체에 집중하므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7) 투우: 소를 상대하여 싸우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의 남부 일부 도시,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적인 투기, 오락이다. 위키백과-투우 <https://ko.wikipedia.org/wiki/%ED%88%AC%EC%9A%B0>

8) 케렌시아: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를 의미한다. 투우 경기장에서 투우사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소가 잠시 쉬는 곳을 뜻하며, 최근에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나만의 휴식처를 찾는 현상으로 불리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케렌시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4485&cid=42107&categoryId=42107> (2018.1.29.)

9) 미니멀라이프(minimal life):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사물의 본질만 남기는 것을 중심으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 문화 사조인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영향을 받아 2010년대 즈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이버 지식백과-미니멀 라이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2579&cid=43667&categoryId=43667> (2018.8.7.)

10)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뜻으로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딴 ‘워라벨’으로 주로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워라벨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36998&cid=43667&categoryId=43667> (2017.10.25.)

휴식과 위로, 안식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신만을 위한 휴식의 시간은 도시민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감이나 심리질환을 없애고 밝은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2) 즉각적 에너지

다음으로 ‘즉각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 여기서 의미하는 ‘즉각적 에너지’란 짧은 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자연의 에너지이다. 특히 나는 시각으로 전하는 자연의 에너지를 표현한다. 예술작품이나 환경적 자극의 흥미로움과 아름다움은 대중들에게 시각적 쾌락감과 각성력을 전달한다.¹¹⁾ 나는 자연이 주는 촉각, 청각, 후각 등의 자극도 강렬하지만 시각이 주는 즉각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나는 도시 식물이 주는 긍정적인 시각적 힘으로 도심 생활에 활력을 얻길 바란다.

중국 북송 때의 화가 곽희(郭熙, 1023-1085년)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 바가 있다. ‘산림과 정원에 거처하면서 자신의 친품을 수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바이고[...] 속세의 풍진에 구속받는 것은 누구나 싫어한다. 안개 피어오르고 구름 감도는 절경 속의 신선은 누구든 동경한다. [...] 그러나 실제로는 눈과 귀가 보고 듣고 싶은 것에 단정되어 있으니, 훌륭한 솜씨를 지닌 화가를 얻어 그 산수 자연을 멋지게 그려낸다면, 굳이 산과 정원을 찾지 않아도 그 경치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¹²⁾ 북송시대보다 현재의 우리는 산수 자연에 노출되기가 더 쉽지 않으며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식물은 무작위한 대자연의 식물보다 아파트 화단, 학교의 정원, 거실의 화분 같은 식물의 형태이다.

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식물을 화면에 옮기므로 도시 자연에 집중해 볼 수

11)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임승빈, 도서출판 보문당, 2012, p.92

12) 「정원」, 윤남순 발행, 국립현대미술관 발행, 2014, p.19

있는 시각의 전환을 제공하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자연의 즉각적 에너지를 주고자 한다. 자연을 재현한 이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를 투자하고 소비해야 하는 모순이 없게 하기 위함과 시각예술이 전하는 각성력과 쾌락감이 도시 안의 자연에서 느꼈던 시각적 신선함과 유사하다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대 사람들의 일상에 유용하며 필요한 자연의 ‘즉각적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3) 영원한 꿈

마지막으로 나는 ‘영원한 꿈’의 실현을 소망한다. ‘영원한 꿈’이란 허황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희망과 이상을 떠올리고 현실에서 실현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나는 관람자들에게 도시 식물로 부터 시각적 휴식과 에너지를 주고 이를 통하여 가치있는 영감, 꿈을 주고자 한다. 도시 속 식물은 단순히 산소를 뿜어내는 역할로서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에게 휴식과 에너지를 주었고 나아가 영감을 주는 생명이고 이상향이 깃든 공간이며 나아가 도시 식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게 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오아시스에서 목을 축이고 힘을 내 앞으로 더 나가는 것처럼 도시 속 한 그루의 식물은 내 꿈을 위한 오아시스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나의 작업을 통하여 관람자들이 도시 안에서도 오롯이 자신을 위한 안식과 휴식을 경험하고 자연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얻어 꿈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 찰나의 휴식과 즉각적 에너지는 영원한 꿈의 실현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돌아온다.

4. 작품분석

1) 'Vivid Plants(선명한 식물)' 시리즈

'Vivid Plants(선명한 식물)' 시리즈는 일상에서 마주한 인상 깊은 도시 식물들을 주제로 드러낸 작업이다. 식물은 중심부에 주제로 나오고 건물과 같은 도시 풍경은 배경으로 등장한다. 또한 대조적인 색, 형태, 질감의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도시 풍경과 식물 이미지의 대조를 극대화하였다. 나는 'Vivid Plants(선명한 식물)' 시리즈를 통해 일상에 작은 부분인 도시 식물을 중심으로 옮겨 이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게 하며 빛바랜 색의 도시 풍경과 선명한 색의 식물 이미지로 도시 속에서 자연의 에너지를 분사하는 식물들의 에너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작품 2](p.5 참조)는 2016년 봄, 처음으로 도시 속 자연이 주는 감동을 경험하게 해준 성신여자대학교의 정원을 평면으로 드러낸 작업이다. 평소 생활의 중심이 되어 크고 중요하게 느껴졌던 건물은 최소화하고, 교정의 잔디밭과 회양목, 소나무를 중심으로 생경하고도 신선하게 느껴졌던 정원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화면의 중앙부와 앞쪽에 학교 정원의 조경 식물인 소나무와 잔디밭이 위치하고 다른 건물들은 뒤쪽, 옆쪽으로 위치하는 구도로 그렸으며 구조물은 보다 빛바랜 색으로 표현하고 식물은 생생하고 보다 채도가 높은 색들로 칠해 주었다. 또한 식물 표현에 있어서는 두터운 질감과 유기적 형태를 사용하여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동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평소 주변부의 요소인 학교의 정원을 시선의 중심으로 옮겨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게 하고 도시 식물이 주는 신선한 자연의 에너지를 만끽할 수 있게 하였다.



[작품 6] The Plant Keeps the Place, 116.8x91cm, acrylic on canvas, 2019

[작품 6]은 7년간 매일같이 지나다녔던 서울시 돈암동의 한 빌라 앞 화단 식물을 화면에 옮긴 작업이다. 이 건물은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작은 화단을 가진 빌딩이다. 그 화단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다. 인공적인 환경 탓에 처음엔 안 어울리게 보였지만 그 식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곳에 적응하고 뿌리내리며 점점 더 늠름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이 대조적인 환경과 자연의 생명력이 흥미로웠고 이를 화면에 담고자 건물 표현의 색, 형태, 질감은 최소화하고 식물은 높은 채도의 색, 다변적인 형태, 입체적 질감을 주어 극대화하였다. 나는 작품을 통해 인공물과 다르게 자연물이 가진

유지 가능한 지속성을 눈으로 직접 느껴보길 바라였다.



[작품 7] It Keeps an Old Town, 145.5x112.1cm, acrylic on canvas, 2019

[작품 7]은 도시의 건물들 사이에 배치되어 자라는 한 그루의 나무를 담은 작품이다. 배경 속 도시 건물들은 현대적 인공물로 깔끔한 모습의 도시 빌딩 모습이고 식물은 마치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생물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빛바랜 색과 선명한 색, 평면적 질감과 입체적인 질감, 기하학적 형태의 건물과 유기적 형태의 식물로 화면을 더 극대화해 표현하였다. 특히 이 작업

에서 나는 질감의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아크릴 물감 작업 전, 핸드코트를 이용하여 두터운 아크릴 표현 이상의 입체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배경과의 대비가 뚜렷하게 생기고 식물이 주는 생명의 에너지는 강해졌으며 이는 현대적으로 바뀐 동네를 지키는 자연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작품 8] Vivid Plants, 91x116.8cm, acrylic on canvas, 2019

[작품 8]은 도시공원에서 본 식물들을 주제로 표현한 작업이다. 그림과 같이 공원엔 융성한 식물들이 있었다. 나는 이 식물들을 아래에서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식물의 강인한 에너지에 주목했다. 앞으로 더 자라나 한 공간을 장악할 것 같은 푸른색의 식물 표현에 주력하였으며 그러기 위하여 나는 [작품

7](p.18 참조)과 같이 채색 작업 전 핸드코트를 이용한 부조 형성 과정을 마치고 색을 칠하였다. 식물들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건물들은 무채색으로 표현한다. 나는 식물에게서 느낀 거대한 웅장함을 평면 안으로 옮기고자 했다. 보는 이들도 일상에서 지나치던 식물들의 존재감과 자연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나의 작업을 통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 'Artificial & Natural(인공과 자연)' 시리즈

'Artificial & Natural(인공과 자연)' 시리즈는 도심 생활에서 마주한 풍경 중 인공과 자연의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났던 모습을 사진과 전사 기법으로 변형 없이 드러낸 시리즈로 보다 사실적인 도시 풍경을 드러낸다. 나는 사진으로 포착한 도시 속 식물의 풍경을 신나 전사기법을 활용하여 검색과 농도를 조절하며 평면에 옮겼고 그 위에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채색의 과정을 더함으로 도시와 자연의 이미지 대립, 공존을 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시리즈는 화분, 화단, 가로수, 도시 속 한 그루의 식물 등 일상의 작은 모퉁이인 곳에 더 집중하게 한다.

[작품 1](p.3 참조)은 서울시 이태원동에서 우연히 마주친 도시 속 한 그루의 나무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다. 작품 속의 나무는 몇 십 년간 그곳에서 자란 듯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새로운 가지와 잎을 꾸리게 되었고 나무 앞 울타리를 넘어 자라게 된 것으로 보이며 울타리로 나무를 해치지 않기 위해 울타리의 한 기둥을 휘어 나무를 보존하고 있었다. 나는 이 풍경이 인공과 자연의 대립을 극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나뭇가지가 도시의 인공물을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는 환경과 이 융성해진 나뭇가지로 건물의 벽과 창문이 거의 다 가려진 이 풍경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지나간 세월만큼 건물을 비롯한 인공물은 많이 낡고 퇴색되어 있었고 식물은 더 웅장해 있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힘은 영

원하다고 생각했던 인공물이 아닌 끝없이 발전하는 생명임을 느꼈고 이를 화면에 사실적이고 극적이게 드러내고자 했다. 나는 관람자들에게 고요한 듯 보이는 자연의 강렬한 생명력과 힘을 전하고자 하며 나와 같이 이 자연 앞에서 겸허함과 겸손함을 함께 느끼길 바라였다.

[작품 3](p.6 참조)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회관 건물 외관에 줄지어져 심어져 있는 회양목의 모습을 포착해 옮긴 작업이다. 나는 학교를 오는 날마다 이곳을 지나며 회양목들을 관찰하였는데 이곳의 회양목들은 자연스럽게 자라다 가도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다듬어지며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년 일정한 간격, 똑같은 형태가 요구되며 살아가지만 가지치기 이후로 다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제각각 자라나기 마련이었다. 나는 가지치기로 다시 모양이 다듬어지기 전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 그 풍경을 사진으로 포착해 남겼다. 이 사진을 신나 전사기법으로 평면에 옮기고 비슷한 모습의 회양목에 개체로서의 존재를 부여하고자 각각 다른 푸른색을 입혔다. 신나 전사 기법을 택한 이유는 프린트보다 빛바랜 색으로 도시 배경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사진과 전사 기법, 그리고 채색을 덧입히는 표현방식으로 아크릴 작업으로 나타내던 표현 기법을 새로운 재료와 기법으로 시도해보았다.

우리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로써 이 작업 속 식물과 같이 일정한 모습과 위치가 요구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작업을 통해서 도시 식물이 전체를 위한 부분이 아닌 개체마다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며 이는 우리의 자화상으로써 생명 하나하나의 존재와 개체성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작품 9] Artificial & Natural II, 37x27.5cm, print & watercolor on paper, 2018

[작품 9]는 서울시 성북구의 성북천 길을 따라 걸어가다 발견한 풍경을 포착해 작업한 것이다. 성북천 길은 위쪽의 도로와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울타리가 줄지어져 있는데, 천 길을 따라 걷다가 주변의 울타리 사이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중에서 꽤 크게 성장해 뿌리내린 이 작업 속 식물의 생태가 흥미로웠다. 울타리를 뚫고 자라고 있는 것 같이 커진 이 식물의 생태 환경과 그 생명의 힘이 주목해 볼 만한 도시 속 자연이라고 생각했다. [작품 9]는 [작품 8]과 같이 사진, 신나 전사, 채색의 과정을 거쳐 인공적인 도시 환경과 변천하는 식물의 모습을 극대화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식물에 집중하고 관찰하며 자연의 유한함을 느껴보길 바랐다.



[작품 10] The Planned Landscape, 37x35cm, print & watercolor on paper, 2018

[작품 10]은 서울시 성산동의 한 초등학교 외벽으로 구성되어있는 계단식 화단의 모습을 옮긴 작업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름 날 이곳 식물들의 푸른 색감이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다. 미세먼지가 기승인 요즘 같은 날, 일상에서 문득 느낀 이 싱그러운 에너지가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그날의 아침, 내가 느꼈던 힐링의 에너지를 화면에 옮기기 위하여 사진, 신나 전사, 채색의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전사 시 신나의 농도를 조절하여 배경을 아주 옅은 색으로 시각화하였고 이와 다르게 채색은 선명한 채도와 농도를 주어 내가 경험했던 식물의 이미지를 배경과 주제의 대립을 통해 극대화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의 싱그러운 에너지가 주는 일상의 행복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3) 'Figure Plants(도형식물)' 시리즈

'Figure Plants(도형 식물)' 시리즈는 이상적인 모습이 요구되며 마치 도형과 같이 길러지는 식물들을 화면에 옮긴 시리즈이다. 나는 도시 속 식물들이 일정 기간을 주기로 매번 비슷한 모습과 일률적인 형태로 가지치기 당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자연의 이치에 맞춰 자연스럽게 자라났지만 언젠가 잘릴지도 모르는 부분에 주목하게 하였고 나는 이들을 중심으로 평면 안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작업에 등장하는 식물에겐 요구, 유지되는 도형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 도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나뭇가지와 잎들을 드러내고자 도형은 기하학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며 그 중심부의 식물에 색과 형태를 더함으로 시각적으로 강조하였다.



[작품 11] Leaves to be Cut, 40.9x31.8cm, acrylic on canvas, 2019

[작품 11]은 구의 모양으로 다듬어지는 조경 식물의 부분 이미지를 통해 새

로 돌아난 새싹, 곧 잘려나갈 식물의 일부분을 그린 작업이다. 구의 도형 부분은 평면적인 무색의 배경으로 표현하며 가지치기 이후로 새로 자라났지만 잘려 허공으로 날아가는 나뭇가지의 이미지는 중심으로 표현함으로 식물에게 요구되는 고정 이미지와 잘려나가는 자연의 부분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도시의 삶에서 자연에도 요구되는 규격화된 모습을 시각화하고 관람자들에게 훼손되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자연의 작은 부분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12] The Regular Triangle, 60x60cm, acrylic on wood, 2018

[작품 12]는 서울시 망원동의 한 빌라 앞 화단 식물의 모습을 담은 작업이다. 이 작업 속 식물에게 요구되는 삼각형의 모양을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자

라난 식물의 모습을 평면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어진 모양과 자연스러운 형태의 나무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품의 재료인 화판에 작업 속 식물에게 요구되는 이미지인 삼각형으로 구멍을 내었다. 그러므로 기대되는 삼각형의 이미지는 무(無)의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주변부의 식물 이미지를 더 극대화해준다. 또한 작업 속 배경인 도시 건물은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을 간결하게 표현하였고 이는 중앙의 삼각형 구멍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우거진 식물의 에너지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획일화 되어가는 도시 풍경에 식물이 주는 자연스러움과 신선한 색, 형태 그리고 그 자연의 에너지를 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람자들은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키고 다원적인 사고를 가지며 새로운 도시 풍경을 경험하게 되길 바랐다.

Ⅲ. 결 론

이 논문은 2016년부터 제작되어 2019년 석사 청구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분석한 글로써 도시 속 식물과 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밝히는 글이다. 논문을 통하여 나는 도시 식물에서 느낀 나의 경험과 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정리하였다.

나는 2016년도부터 집중하며 관찰, 경험한 도시 속 식물의 풍경 이미지와 에너지의 매력에 주력한다. 바쁘고 정신없는 도시 생활에서 도시 식물이 주는 자연의 신선함과 에너지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나는 도시 식물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인공과 자연, 현실과 이상, 멈춤과 재생과 같은 대립적인 특성을 발견하였고 그 환경과 이미지, 특성들의 대립에서 나오는 긴장감과 공존의 미학을 평면 안에 표출하고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연구하였다.

논문은 과거의 개인적 경험을 통한 도시 식물에 관한 연구로 시작하여 다양한 풍경의 도시안의 식물 이미지를 보여준다. 여러 가지의 도시 식물 풍경을 세 가지의 조형 요소인 선명한 색과 빛바랜 색, 유기적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 입체적 질감과 평면적 질감을 이용하여 대립적 조형요소들을 담아 화면을 극대화한다. 이는 과거의 익숙한 풍경화의 소재, 구도 등과 차이를 보여주며 한 화면 안에 대조적인 색, 형태, 질감의 대립을 동시에 넣어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전통회화의 조형요소와도 다른 의의를 가진다.

나는 도시 생활에서 주변부에 위치하던 식물들의 모습을 화면의 주 소재로 옮겨 드러냄으로써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던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유와 휴식의 시간을 주고 이를 통해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과 다양한 시각을 전달한다. 나는 현실과 이상을 모두 긍정하며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도시 속 식물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생물을 직접 가꾸어 꾸려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삶을 우리에게 주며 이는 현실 속 이상향의 문화이자 자아실현의 요소가 된다. 또한 도시 식물은 각박할 수 있는 도시에 초록의 싱그러운 에너지를 전달한다. 먼 대자연으로 쉽게 떠날 수 없는 동시대 사회 속 우리의 삶에 식물들은 위로와 안식, 휴식을 제공하고 이는 개인의 정신 회복, 나아가 개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에너지로 확장된다. 도시 식물에 집중할수록 나는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도시의 인공물들은 사이의 작은 식물들은 늘 똑같고 지루한 모습 같아 보였지만 어느새 단단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영롱한 색과 아우라를 뿜어내주었다. 어느새 그곳을 지키는 주인과 같이 강인하고 듩직한 생명체가 되어 다가온다. 나에게 도시 식물은 더 이상 작은 부분이 아닌 나에게 영감을 주고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크고 강하게 느껴졌던 현대식 건물의 외형과 웅장함만큼이나 커진 도시 속 식물의 존재감을 화면에 옹금으로 인공과 자연의 수평적 대립을 보여주고자 한다.

논문에서 다루어진 세 가지의 도시 식물의 특성과 대립 요소들은 동시대의 도시 식물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회의 더 다양한 도시 식물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풍경 해석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식물의 모습은 도시의 기획, 설계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다양하게 위치하고 생성, 변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도시와 식물의 이미지와 특성을 변화에 더 집중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친숙하고 다양한 도시 식물을 다루며 그들의 모습과 가치에 대해 중심으로 사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 속 식물을 수없이 마주한다. 거실 한편의 작은 화분부터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공원까지, 모두 일상에 깃든 도시 식물이다. 사람들은 이 식물들에 관심이 있고 매력을 느끼지만 이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작품을 통해, 나는 보는 이들에게 도시 속 식물이 주는 휴식과 힘,

그 힘이 위로와 에너지가 되어 도시 안에서 나의 능력을 실현시키는 꿈의 실현으로 나가갠길 바라였다. 감상자들은 도시 식물을 살펴보며 폭넓은 시야와 위로를 얻길 희망한다. 이는 주변의 풍경과 생명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사회를 다원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기획집단 MOIN 외 1인, 서해문집출판사, 2010
- 「그림 창문 거울」, 윤원화, 보스토크프레스 출판사, 2018
- 네이버 지식백과-미니멀 라이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2579&cid=43667&categoryId=43667>
7 (2018.8.7.)
- 네이버 지식백과-위라벨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36998&cid=43667&categoryId=43667>
7 (2017.10.25.)
- 네이버 지식백과-케렌시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4485&cid=42107&categoryId=42107>
7 (2018.1.29.)
- 네이버지식백과-힐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7394&cid=62841&categoryId=62841>
1 (2019.3.21.)
- 「다르면 다들수룩」, 최재천, 아르테 출판사, 2017
- 위키백과-투우 <https://ko.wikipedia.org/wiki/%ED%88%AC%EC%9A%B0> (2018.5.23.)
- 「정원의 발견」, 오경아, 궁리출판사, 2013
- 「정원」, 윤남순 발행, 국립현대미술관 발행, 2014, p19
- 「쾌락」, 에피쿠로스, 문학과 지성사 출판사, 1998
-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임승빈, 보문당 출판사,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Plants in Urban places Using a Opposite Formative Elements

- Focusing on Kwon Eunsom's City Plants series -

Kwon Eunsom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centers on the works of plants in urban places from 2016 to 2019. I am looking to encourage energy conversion, conservation, and social change through plants in urban places by studying various ways of expression with the material of plant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me due to my personal experience of mental recovery through my work with seeing the plants.

I began to be fascinated by the plants as early as the Spring of 2016. I was intrigued by the energy and the composition of plants in urban environments. Through my artwork, I'd like to bring focus to the plants, existing outside of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the story they tell through an integration in the environment's landscape.

This thesis stories three different artworks that feature three na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lants that can be seen in today's contemporary society. My artwork shows and analyzes the natural forces of plants and focuses on plant life used to enhance the views of current day cities while helping maintain a cleaner atmosphere.

My hope is that this thes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s to understand the power and impact of plants in today's cities and how it helps to provide a new view into the world. The thesis should also encourage individuals to not only view plants as a valueless part of every day life but as a piece of nature that strives to enhance life for all.